

논개사 정립 및 논개정신 선양에 공헌하신 분들



1. 9·10대 국회 최성석(崔成石) 의원



장수출신 국회의원으로 2대를 역임한 고 최성석 국회의원은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서 태어나 성장 하였다.

1932년에 출생하여 장수 초등학교, 전주농업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소재 국학대학을 졸업, 고려대 경영학과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20여 년간 전통야당에 몸담아 반독재 투쟁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제9대,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원내에 들어간 후 2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정전반에 걸쳐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3년 장수·진안·무주 지역에서 신민당 공천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쪽같은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조로 독재정권하의 어려움 속에서 원내 문화 공보위원 소속으로 교육문화예술의 창달에 많은 활동을 벌인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¹⁾

제10대 국회의원 임기 중 1978년 8월 질병으로 한창 일할 48세에 안타깝게도 별세하여 고향땅에 잠들었다.

국회 문화공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수 수남 초등학교 강당 건립 등 관내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힘썼으며, 특히 의암 주논개 님이 장수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전부터 논개 님의 애국충절 정신에 걸맞는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길을 모색해 오면서 논개사당의 성역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회입성 후 1974년 논개사당 확장 이전

1) 장수군지(1990, 전주대흥출판사)

사업에 국비를 반영시켜 국가예산 지원의 기초가 되어 논개사당 성역화에 동력이 되었다.

그 후 논개사당 이전 보완 사업추진시 논개사당 경계 담장과 내·외삼문 설치비 등으로 국·지방비 10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논개사당을 맡김하고 반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2. 향토사학가 오치황(吳治滉) 선생



지역문화, 장수삼절, 논개 관련 사료 조사와 연구 등 장수지역 향토사 발전에 공헌이 큰 오치황(吳治滉) 선생이지만, 발행된 단행본과 밝혀진 연구자료가 없었고, 그의 공적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없음을 안타까워한 지역 어르신들과 “논개정신선양회” 회원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행히 2022년 4월 여식인 오인선 씨(50세)가 제공하고 증자료와 친필원고 일부를 확보하여 오치황 선생의 공적을 정리하였다.

오치황(吳治滉, 1927.06.14~1996) 선생은 보성(寶城)의 31대손으로 호는 삼허(三虛)이다. 아버지는 오승호(吳升鎬, 1893~1968), 초명(初名) 오일승(吳一昇)이며, 호는 수졸당(守拙堂)이다. 계남면장(1937), 장수향교 장의(掌議, 1947)와 전교(典校, 1949), 전북지 편찬소 부회장, 성균관 이사를 지냈다. 계남면 복지회관에 기념비가 있는데 훼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장수지(長水誌, 1927~1928)를 발의한 10명 중 1명이며 계남면 흥학당(興學堂)에 활판(活版)을 설치하여 발행에 참여하였고, 발문(跋文, 1928년 2월)을 지었다. “장수삼절(長水三節)”이란 용어는 1927~1928년에 발행



“임명장 장수향교 전교”
(오승호)

된 『장수지(長水誌)』의 서문과 발간 취지서에 처음 확인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장수지 기록에 오승호 선생의 “근수루명(近水樓銘)” 운과 “벽남대(碧南臺)”의 원설(原說)이 남아있다. 오치황 선생의 조부(祖父)는 오재옹(吳在翁 1861~1915)¹⁾으로 초휘(初諱) 오봉원(吳鳳源)이며 호는 우재(愚齋)이다. 1896년 성리학에 뜻을 두고 계남면 궁양리 양지마을에 “사물정(四勿亭)”을 지었으며, 항일투쟁과 향촌의 학문, 후진양성을 위하여 힘썼다. 후에 수해로 소실되었는데, 1955년 오승호 선생이 계남면 올평(밤징이)마을에 이건하여 현재에 이른다.



“전북지 편찬소 부회장”
(오승호)

오치황(吳治滄) 선생은 장수군 계남면 “증방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전기전문 학교를 졸업했다. 1963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고 1972년 “의암사적보존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을 지냈으며 전북 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73년 민주화운동으로 6개월 투옥 생활을 했으며 1976년 논개묘를 발견하였고 1976년 장수군 “논개사당 성역화 추진위원”이었으며 함양군 “논개묘역 성역화 추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80년 계남중학교 설립에 참여했고, 제6회 장수군민의장 문화장(21호)과 1990년 “장수군지편찬위원회” 감사패를 받았으며 1990년 12월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수문화의 계승발전 보존”을 위한 “문화가족 확인서”와 휘장이 있다. 1985-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에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나 1996년 2월, 이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 후유증으로



사물정

1) 오재흠(吳在翁)으로 명기된 곳이 있어 바로잡는다.

세상을 떴다. 오치황 선생은 평소 순하면서도 강직한 성격으로 지역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사물정(四勿亭)”에 거주하면서 지역문화 채록,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오치황 선생은 장수지역 문화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1927~1928년 간행된 “장수지(長水誌)”를 번역, 참고하여 “장수군지”를 쓴 친필원고가 있으며, “장수문화원 추진위원회(1992. 02. 28)” 1차 회의서류와 2차 회의서류(1992. 04. 09)가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있으며, ‘장수문화원 개원식’ 계획과 ‘제1차 이사회(1992. 08. 07, 19명 중 16명 참석)’ 자료가 있다. 당시 문화원 설립추진위원 명단은 애향운동본부장 김진영, 새마을운동지회장 양형식,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이희석,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유기열, 유도회 지부장 김창영, 체육회전무이사 이승하, 향토사학자 오치황, 최규홍, 독지가 김두봉, 장재영으로 총 10명이었다. 또한 장수향교 위원으로 활동한 기록²⁾이 있다.

또한 1972년 고적 유물을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수사적보존위원회(長水史蹟保存委員會)”를 조직한 발기(發起) 취지문(趣旨文)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내 고장 전통 가꾸기”라는 제목의 원고에는 ‘전통 가꾸기 위원회’, ‘집필 위원’, 고적(古跡)의 ‘화보(畫報)’, ‘고장을 빛낸 사람들’, ‘선인들의 발자취’, ‘유적’, ‘유물’ 등을 정리하기 위한 원고가 있다. 1972년 “사물정(四勿亭) 유계(儒契)”의 이름으로 “장수지(長水誌)” 발간 목적의 취지문과 원고가 남아있으며 “장수군지(시대미상)”의 원고 4권이 있는데 한규준, 산서 김종섭, 천천 김동석, 계남 손정호(孫正鏞), 윤현섭 등의 집필자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1982년 간행된 “삼절(三節)의 고장”, 1990년에 간행된 『장수군지』와 일치하지 않아 간행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기원고로 판단된다. 참고문헌에 『벽계승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75년 이후의 자료이다.

2) 활동 연도는 확인할 수 없다.

오치환 선생이 참여하여 간행된 지역자료는 2권이 확인되는데, 1982년 간행된 “삼절(三節)의 고장”에서는 ‘고장을 빛낸 인물’, ‘유적, 유물의 모습’, ‘현장의 발자취’, 총람(總攬) 분야를 맡아 발행하였다. 1990년에 간행된 『장수군지』는 “역사편”, 종교 중 “충실”과 “유교”, “장수삼절”, “고장을 빛낸 인물”, “서원에 배향한 인물”, “국회의원”, “발문(跋文)”에 “향토사가가”의 자격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장수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1992)



장수문화원
설립추진위원명단



장수문화원 1차
이사회이록



장수사적보존위원
회발기취지문
(1972)



내고장
전통가꾸기발간기



장수군지원고(1)
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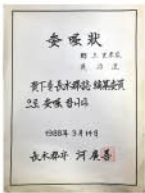
장수군지(2) 원고



장수지발간목록
취지문(197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
(1985-1998)



장수군지편찬위원
(1988)



삼절의고장 발간
감사장



신안주씨중앙총친
회초청장(1995)

“장수삼절(長水三節)”에 대한 연구와 애착이 강했는데, 특히 논개에 대한 채

록3), 연구 사료가 많다. 논개의 출생기록, 대동기문(大東奇聞)에 최경회 장군과 함께 진주성에서 전사한 장수인 황진(黃進)에 대한 기록, 청병야설(淸兵野說)의 논개 기록, 의암사 안내판, 축석의기논개성장향수명비 필사본, 장수지(長水誌)의 논개 기록 등을 필사한 원고가 있으며, 1969년 장수군수의 이름으로 논개사당을 안내한 한글로 된 자필이 있는데, 여기에는 1956년 사당 건립, 논개가 출생한 주촌마을, 최경회의 내실(內室/아내), 기생으로 자천위장(自薦僞裝, 스스로 위장)하여 왜군 장수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 게야무라 로프스케”를 안고 남강에 투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에 연재된 “논개” 소설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지적한 원고가 있으며 1989년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한편 오치황 선생이 1972년부터 수년간, 발품을 팔아 찾아낸 함양의 “논개묘”에 대하여 함양군 이름으로 추진한 “의암 주논개묘 성역화추진”계획의 원본과 경남일보가 발행한 기사(1976. 07. 10)가 있는데, “논개묘”가 함양에 위치하게 된 이유, 발견 경위 등 기사의 내용이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내용은 329페이지 “언론에 비친 의암 주논개” 편에서 볼 수 있다. 근거위주로 기록하다 보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으리라 본다. 오치황 선생이 장수향토사와 논개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논개정신을 선양한 공로는 매우 크다 하겠다. 앞으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은 보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청병야설의 논개 기록



논개 출생기록



의암사 안내판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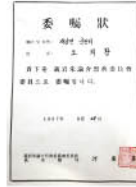
- 3) 조부인 오재웅(吳在翁 1861~1915. 초명 오봉원/吳鳳源)의 유고집에 논개에 대한 기록이 있어 연구에 탄력을 받았으나 아직 유고집을 발견하지 못했다.



축석기근개생장향수명비 필사본



군수 안내말 한글기록(1969)



의암주논개제전위원(1987)



'의암주논개묘성역화추진'(함양군)

3. 향토사학가 유기열(劉淇烈) 선생



유기열 선생은 장수읍 노곡리 대리 243번지에서 1930년 2월 3일 출생하였으며, 1998년 5월 17일 68세로 별세하였다. 선생은 장수양잠협동조합장, 장수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1984년 10월 6일 장수읍 초대 번영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역 문화발전에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1974년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2년에 발간된 『삼절의 고장』 ‘명승과 경관, 현장의 발자취’ 등의 집필자로 활동하였고, 1986년 제4회 “군민의 장/문화장”을 수상하였으며¹⁾ 1990년 “장수군지 집필위원”²⁾과, “군정 자문위원”, 1992년 장수문

1) 장수읍, 『장수읍지』, (1997, 전주 인문출판사), 517쪽

2) 장수군, 『장수군지』, (1990, 전주 대흥정판사)

회원이 설립되면서 “향토지 발간 편집위원”³⁾에 위촉되었으며 오치황, 고두영 선생과 함께 1997년 “장수군지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팔성사 법륜스님에 의하면, 유기열 선생은 평소 지역문화, 문화재 발굴에 온 힘을 다했는데, “팔성사” 8개 암자의 이름을 모두 찾았고 현장답사까지 마쳤으며 답이 있는데 답의 이름도 밝혔고 지역문화인 “타루비”, “백용성 조사”, “논개” 등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민족의 정신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 암자의 터에서는 “부처 불(佛)”과 “절 만(田)”자가 새겨진 기와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번역본 초창기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구해 팔성사 주지 법륜스님에게 전하기도 하였는데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⁴⁾

부인 오영자 여사는 “논개 시신을 찾는다고 집안에 쌀이 있는지 죽이 끓는지도 모르고 4~5년을 진주로 함양으로 찾아다녔다. 당시에 녹화한 ‘비디오 테잎’이 있었는데 찾지 못하겠다.”⁵⁾는 말씀에서도 오치황 선생과 함께 논개묘소를 찾는데 쏟은 정열을 엿볼 수 있다.

1975년 “의암 주논개 사당”을 세우면서 “장수군민 현수(檣樹)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오치황(향토사학가), 한순태(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육동기(전 고교 임업교사) 등과 함께 한국의 전통 수종을 선정, 나무심기에 앞장서기도 하였으며,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의암 주논개의 생애와 애국 충절의 정신, 순국 사실들을 조사, 기록하여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 등에 송부한 결과 KBS에서 “의랑 논개” 연속극을 제작, 방영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3) 장수문화원(1994)

4) 법륜스님, 팔성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장수군」에는 팔성사의 전신인 운점사가 명확히 표기, 설명되어 있다.

5) 오영자(79, 주공APT)

6) 김순홍(장수읍)

4. 28년여 장수 문예발전과 논개정신 선양에 기여한

김진영(金鎭泳) 선생



1933년 3월 17일생으로 본적은 계북면 매계리 삼다리 마을이다. 전주 상고를 졸업 후 전북대학교 문리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60년 4.19 학생 의거 직후 실시된 제 3회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7살의 나이로 당선되었다. 삼다리 마을에는 “김흥로(金興魯) 적선비(積善碑)”가 있는데 김진영 선생의 조부이다. 김흥로와 부인 거창신씨는 평소 어려운 과객들과 걸인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며 살았다.

이분들이 별세한 후 도움을 받았던 걸인 수백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뜻을 기리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현재 김일한 선생의 자택에 있다.

1981년 “장수군 애향운동본부장”, 1982년 “사회정화운동 장수군추진협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김진영 선생은 1992. 6. 22 장수문화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1992. 9. 3자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고, 1992. 9. 28 회원 193명으로 개원식을 가졌으며, 초대 장수문화원장에 취임한 이래 2004년까지 12년간 장수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특히 장수군에서 주관해오던 “의암 주논개 제전행사”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장수군과 협의하여 1992.9월 부터 장수문화원에 이양받아 장수문화원에 “의암 주논개 제전위원회”를 두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2년 문화원 개원 이후 “탄신 제418주 의암 주논개 제전행사”, “제1회 의암 백일장(1992.09.28.)”, “420주 의암 탄신기념 군민 씨름대회(1994)” 등을 필두로, “장수문학 창간호 출판기념회”, “청소년 향토유적지 순례교육(1994)”,

“제1회 벽계시회 한시 백일장”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 “논개 생애와 충절 정신에 관한 학술 세미나” 개최 이후 1997『장수의 표상(2덕 3절 5의, 장수문화원)』, 1997『논개실기(장수문화원)』 등 논개 관련 사료들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당시 분분했던 논개사정립과 거룩한 논개 충절정신을 민족정신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전담조직이 절실하다고 판단, 당시 김상두 군수와 협의하여 가칭 “논개정신선양회”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아 정관안을 만들고 정계, 관계, 출향인사 등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2000.6.27 서울 워커히에서 역사적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창립총회를 갖고 당시 우석대학교 장명수 총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의암 주논개의 애국충절 정신을 선양하고 논개사의 정립과 축제행사의 전국규모화 등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대 장명수회장에 이어 2003.7.28.부터 2008.9.18까지 5년 2개월간 제2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매년 개최한 “의암 주논개 축제(1967~)”를 비롯하여 “논개 추모 전국 학생 무용 경연대회(1999-2005)”, “논개 충절무 공연(2001-2010)” 창작오페라 “논개” 공연 등은 물론 2008년에는 장수군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함께 3시간 완창인 “창작판소리 논개”를 발표하고 음반(CD)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2009년 “논개 축제”에 무대에 올려 공연하였다. 류기형 원작을 바탕으로 국립창극단 왕기석 명창의 사설, 안숙선 명창이 직접 작창한 판소리 ‘논개’는 사회성과 함께 예술적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영 선생은 장수군 애향운동본부장으로 11년, 장수문화원장으로 12년,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으로 5년 2개월 모두 28년여 긴 세월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군민의애향정신과 문화예술 발전, 논개정신 선양에 선구자적 역할은 해온 분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5. 30여 년간 논개를 붙들고 살다간 고두영(高斗永) 선생



고두영 선생은 1929.7.11일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에 서 아버지 고봉석 님과 배오목 어머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2017.10.2일 향년 89세로 별세, 고향땅 계남면 화음리 선영하에 안장되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주경야독 고학하면서 경남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학교를 마친 후 장수군 관내 초등학교 교사와 장학사, 교감을 거쳐 계남초등학교 교장직을 끝으로 40여 년 동안 교직에 근무해 오면서 장수교육청 근무 시절 “장수문백”이라는 학생 문예지를 해마다 발간하는 등 학생 문예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분이다.

선생은 교육자보다는 논개를 흠모하는 시인으로 더 알려진 분이다.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월간「장르」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시집 “하얀 바람의 순결” “빛바랜 영머구리 울림통” “들풀의 속살거림” 등 생전에 모두 8권의 시집을 냈으며 “주논개와 임진란” “겨레의 여신 주논개” 공저 “장수군지” “장수의 얼 동화집” “논개의 생애와 충절” 등을 펴내는 등 주논개 님의 삶과 행적을 찾아 님의 고귀한 충절정신을 글과 시로 남겨 논개 님의 충혼을 민족정신으로 되살리는 데 혼신을 다해 살다 가신 분이다.¹⁾

선생께서는 교직생활과 장수문화원장, 장수노인 대학장, 장수문인 협회장으로 봉사해 오면서 논개정신 선양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장수 군민의장 문화장 등을 수상했다.

구전과 세인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 전설처럼 전해온 논개애기가 일제 강점기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땅속에 묻혀 있던 1846년 당시 정주석 현감이 만든

1) 전북일보 (2017.10.10.)

‘논개 성장향 수명비(論介生長鄉 暨名碑)가 발굴되면서 논개님에 관한 사료를 찾아 논개의 가문과 출생, 생애, 임진란 의 거사, 순절 등을 정리하여 1972년 “장수절개”라는 책을 펴냈으며 1977년에는 “이애미 논개” 책자를 발간 논개사를 정리하고 님의 충·의·열 정신을 선양하였다.)

이와 연관되어 1981년 KBS 고 백남봉 방송인이 끌어가던 “전국일주” 프로그램에 논개 생가터가 소개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게 되자 청와대를 두 차례 방문하여 충절의 여인 논개의 우국충정을 설명하고 생가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므로써 논개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생의 글과 시를 보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19세 꽃다운 나이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나라와 부군의 원수를 갚으려 했던 충절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여 있음을 느끼게 한다.

선생께서는 논개정신 선양을 위해 1996년 논개학술 세미나, 2014년 논개정신 선양사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등 여러 차례 논개정신을 민족혼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시와 글로 논개님을 붙들고 30여년을 살다 가신 선생의 생애는 논개정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선생은 가셨지만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에서는 영상물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장수관내 여러 곳에서 선생의 시비를 볼 수 있다.

선생의 여러 편의 논개관련 시 중 한편을 적어 본다.

2) 송일섭 (전북 재능시 낭송협회장, 전북문학관 학예사)

그 이름 의랑(義娘) — 논개

고두영

죽음에서 태어난 그 이름이여!
흔적 없이
소리 없이 임 가신 긴 여울목
고향집 부모 생애 그 모두를
슬픈 물결에 묻어두고
수모와 모멸과 천시를 넘나들던
서러운 이름이여!

햇빛에 떠오르면 정사가 되고
달빛에 잡기면 야사가 되거늘
햇빛 달빛도 비켜서 버린
외로운 이름이여.

이젠
꽃빛 불빛으로
민중의 가슴 속 화석으로 새겨진
의낭루에 불사조로 살아난
구원의 여신
거룩한 이름이여
그 이름이여!

6. 장수의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한 김상두(金相斗) 군수



고 김상두 군수는 1995년 민선1기, 1998년 민선2기 두 차례 장수군수를 역임했다.

1995년 군수로 취임한 이후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논개생가지에서 장수로 연결하는 관광 순환도로개설, 농민이 잘사는 장수를 위해 장수사과의 최고 명품화사업을 비롯하여 장수인의 자긍심을 위한 2덕 3절 5의의 열 분을

장수의 표상으로 정립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해 유적을 정비하고 기록물을 정리한 “장수의 표상” 책자를 1997년에 발간하기도 했다.

장수의 표상은 조선조 명재상으로 알려진 방촌 황희(黃喜)선생과 고려조 수절신 정신재 백장(白莊)선생을 2덕(德)으로, 임진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일본의 왜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論介)와 목숨을 바쳐 향교를 지킨 정경손(丁敬孫), 자기의 책무를 통감하고 현감따라 순절한 통인 백씨(白氏)를 장수 삼절로, 조국의 독립을 일념으로 3.1운동을 주도하신 백용성(白龍城) 조사(祖師)와 이고장에서 독립군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장렬히 싸운 문태서(文泰瑞), 박춘실(朴春實), 전해산(全海山) 장군과 한글 사랑으로 평생을 바친 정인승(鄭寅承) 박사를 5의(義)로 10분을 2德 3節 5義로 정립하였다.

장수에 황희공원을 조성하고 백장선생의 유적지를 문화재로, 통인백씨 유적지를 동국대학교 흥광표 교수의 지원을 받아 암벽에 말을 새기는 등 규모 있는 공원으로 탄생 시켰으며, 독립운동가백용성 조사가 태어난 변암면 죽림리에 생가를 복원하고 용성기념관과 교육관 등을 설립하는 현충 유적지로서 손색없이 정비하였고, 문태서, 박춘실 장군의 묘비를 양악마을 입구에 세웠으며, 정인승 박사 생가지를 조성하였다.

장수를 전국에 알리려면 논개를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1995년 취임 하자마자 논개생가의 재 조성과 논개사당의 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논개사당 전면에 있는 두산저수지가 농업용수시설로 필요성이 떨어지자 당시 남원농조 신금암 조합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장수군에서 서둘러 매입하였고, 저수지 주변의 개인소유의 땅을 2년여 동안 어렵게 매입하여 의암공원과 의암호수를 장수군민의 쉼터 및 유적지로 조성하였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지역의 숙원인 논개사당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 당시 경제기획원장관겸 정재석 부총리를 방문. 설득하여 소요사업비 30억원(국비15, 도비7.5, 군7.5) 확보 한 후,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998.12월 완공하였다. 이때 논개사당 진입로 주변 등에 있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공적비 등을 남산 북쪽(구 벽계정)에 잘 정비하여 옮겨 놓기도 했다.

대곡제에 수몰되어 없어진 주촌 마을과 1986년 도로변 길모퉁이 27,522㎡ 규모로 협소하게 조성되어있는 논개 생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곁촌 마을을 민속촌으로 정비하여 주촌 마을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논개 생가지는 주촌 마을 바로 아래 대곡제가 내려 다 보이는 위치에 1996년에서 1998년까지 2년간에 걸쳐 67,518㎡의 토지를 매입한 후 논개생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생가지내 시설로는 논개 생가와 논개 부모 묘 조성, 의암기념관, 논개동상과 부조, 의랑누대, 사적비, 단아정, 주차장, 판매장, 식당, 관리사, 조경 등에 모두 6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0.9.29 역사적인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국노래자랑유치 등 성대한 준공식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3박4일간의 논개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논개생가지 준공식과 백용성생가지 준공식, 논개사당에서 개최된 논개 대축제 등 연관된 행사를 다채롭고 성대하게 치루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전국축제로의 도약은 쉽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때 KBS 전국노래자랑 팀에서 '이 골짜기에 누가 와서 노래자랑을 녹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 하자 2000 명을 책임진다는 김군수의 자신 있는 대답과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들을 본 방

송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논개사당과 논개 생가지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월간중앙에서 1998년 IMF시대에 희망인 “국운 개척의 영웅들”에 ‘장보고, 광개토대왕, 이정기, 대조영, 왕건, 정도전, 논개, 문무왕’을 선정 조명시키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장명수(당시 우석대 총장) 초대 논개정신선양회장을 비롯 정세균 전 국회의원, 백낙천 전 전주방송 고문, 조선일보 이규태 논설위원, 진주 성계옥 여사, 서울대 이애주 교수, 정치인 이철승, 정재석 전 부총리, 임병찬 전북 애향운동본부장, 불교계 도문스님, 정동주 작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최규호 교육감, 김수미 연예인 등 전국각지에서 논개를 추모하는 분들이 모여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창립총회를 2000년 6월 27일 11:00에 서울 웨라톤 호텔 지하1층(썬플라워)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IMF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노력할 때 장수의 상징이요 충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후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가 설립되면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논개사를 정립하였고, 2000년부터는 논개축제를 주관하면서 전국적으로 논개를 닮은 훌륭한 여성을 발굴하여 논개탄신 축제마당에서 의암 주논개상(像) 추대식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의암 주논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가지와 사당을 장수의 주요 문화 유적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 ‘논개사’를 오치환 선생이 기초를 닦아 왔다면, 민선 김상두 군수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한 분이라 하겠다. 김군수의 의암 주논개에 대한 부단한 애정과 향토문화 유적정화에 이바지한 공로는 매우 크다 하겠다.